제 2강 영원한 스승, 공자

1. 공자, '사람'을 말하다

1) 책벌레 공자, 위대한 스승이 되다

공자의 이미지- 근엄한 표정에 하얗고 긴 수염을 늘어뜨렸으며 두루마기를 단정하게 차려입은 채 두 손을 공손하게 앞으로 맞잡은 노인의 모습을 공자라고 '상상'. 그러나 공자에게도 어린 시절이 있었고 부모님을 모두 잃어 창고지기 노릇을 했던 청년 시절이 있었으며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받아들여 줄 제왕을 찾아 여기저기 떠돌던 장년 시절도 있었음.

공자, '야합(野合)'서 태어나다- 그 시대 '야합'의 의미는?

부모 잃은 소년 공자, 홀로서다- 창고지기 노릇을 하며 그 당시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수많은 책들, 즉 죽간(竹簡)을 읽으며 고대의 지식을 습득.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 석 달 동안 고기 맛을 모를 정도로 즐거워했던, 진정한 마니아. 책벌레에 음악 마니아, 그것이 바로 젊은 시절 공자의 모습.

머리 가운데가 내려 앉아 이마가 좀 튀어나와 보이긴 했지만 9척 장신에 활도 잘 쏘고 말도 잘 타며 음악에 한번 빠지면 맛있는 음식 따위는 돌아보지도 않는 사람, 자세가 단정하고 온화하며 세상의 모든 지식에 통달한 사람.

'만세사표(萬世師表)'- 누구든지 자신의 제자로 받아들였음. 지식이 귀족들의 전유물이었던 시절, 마른 고기 한 묶음만 들고 가면 누구나 그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건 매력적인 일.
("마른 고기 한 묶음이라도 가져와 배우겠다는 사람치고 내가 가르치기를 거절한 적이 없다."(子曰, 自行束脩以上, 吾未嘗無誨焉.)(「술이」))

2) 공자와 그의 제자들

은행나무가 서있는 공자의 토론식 교실-
제자들의 수많은 질문과 공자의 대답. 공자의 문하에 3천 명의 제자들.(2008년 베이징올림픽 개막식, 공자의 3천 제자를 의미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손에 죽간을 들고 나타났던 장면) 직계 제자 72명,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랑했던 제자는 안연(顔淵), 즉 안회(顔回).

재산도 있었고 외교적 수완이 뛰어났던 또 다른 제자 자공(子貢)에게 묻다. “너와 안회 중 누가 더 나으냐?” 자공은 안회는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알지만 자기는 하나를 들으면 둘 밖에 모른다며 안회가 훨씬 뛰어나다고 인정함. 그러한 자공의 대답에 대해 공자 역시 “나와 너 모두가 그만 못하다”라고 말함. 요절한 안연.
자로(子路), 공자가 자로를 처음 만났을 때엔 저 녀석이 과연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의심했지만 자로는 공자의 가장 충성스런 제자가 되었음. 자로가 죽은 뒤 젓갈로 담가졌다는 소식을 듣고 공자가 눈물을 쏟으며 자기 집에 있던 젓갈을 다 쏟아버렸다고 함.
나무를 뿌리 채 뽑을 수 있었던 천하장사 공량유(公良孺), 새나 동물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재주를 지녔던 공야장(公冶長), 효자였던 증삼(曾參). 못생긴 담대자우(膽大子羽), 나중에 담대자우가 담력이 크고 용감무쌍한 것을 보고 공자는 외모만으로 담대자우를 잘못 평가했다면서 반성한다고 말했음.
나이 50이 넘었을 때 공자는 이제 노나라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뜻, 즉 인(仁)과 의(義)를 펼칠 수 있는 곳을 찾아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기 시작함. 67세 되던 해에 공자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옴.

3) 언론의 힘, 춘추직필

고향으로 돌아간 뒤 『춘추(春秋)』 저술.
‘춘추필법’, ‘미언대의(微言大義)’- 기록은 짤막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큰 의미. 글자 하나하나에 올바른 대의를 담아서 왕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겠다는 공자의 의지가 들어가 있음. 대의명분을 위해 직필을 하는 것, 즉 올바른 글을 쓰는 것이 바로 ‘춘추필법’이며 ‘춘추직필’

H.G. 크릴(Creel)- 공자는 ‘인류를 신뢰했던 사람’. 선(善)을 좋아하는 마음을 길러주는 시(詩)와 겸손함과 절제를 알게 해주는 예(禮), 사람의 마음을 순화하는 악(樂)을 통해 조화로움[和]에 이르고자 했던 공자는 사실 점진적이고 온건한 개혁주의자.

4) 『논어』의 핵심은 ‘사람’

□논어』에 들어있는 것은 ‘사람’-
공자가 말한 ‘인(仁)’의 핵심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있음. ‘지식[知]’이 무엇이냐는 번지(樊遲)의 물음에 대해 공자는 ‘사람을 아는 것[知人]’이라고 대답함. 그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었음. ‘사람’들이 부딪치고 살아가며 느끼는 것들, 지켜야 할 것들, 추구해야 할 것들, 경계로 삼아야 할 것들이 그 속에 들어있음.

배움

“배우고 시간 날 때마다 그것을 실천에 옮긴다면 어찌 즐겁지 않겠는가?”
(子曰, 學而時習之, 不亦樂乎?)(「학이」)

“태어나면서 아는 사람은 최고다. 배워서 아는 사람은 그 다음이다. 몰라서 고생하다가 비로소 배우게 되면 그 다음이다. 몰라서 고생하면서도 배우지 않으면 이건 최하인 사람이다.”
(孔子曰, 生而知之者上也; 學而知之者次也; 困而學之, 又其次也; 困而不學, 民斯爲下矣)(「계씨」)

“배우기만 하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 헛것이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學而不思則罔, 思而不學則殆).”(「위정」)(후난성 창사 마오쩌둥 고향집 벽에 쓰인 글귀)

인간의 자세

“지식인은 행동보다 말이 앞서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긴다(子曰, 君子恥其言而過其行)”(「헌문」)

“남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을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남을 알아주지 못할까 걱정하라.”
(子曰, 不患人之不知己, 患不知人也)(「학이」)

“내게 잘난 점이 있으면 언젠가는 남들이 다 알아줄 테니까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보고 칭찬하는 데에 인색하지 말라”

“공자가 말하길, 자로야, ‘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에게 가르쳐주랴! 아는 것은 안다고 하여라,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여라, 그게 아는 것이다.”
(子曰..由! 誨女知之乎! 知之爲知之, 不知爲不知, 是知也!)(「위정」)

“세 사람이 가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좋은 점을 택해 본받고, 나쁜 점이 있으면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고치도록 노력한다.”
(子曰, 三人行, 必有我師焉. 擇其善者而從之, 其不善者而改之.)(「술이」)

“젊은 사람들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 젊은 사람들의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나이든 사람보다 못하다는 법이 있느냐. 나이 사오십이 되었는데도 명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은 겁날 것이 없다.(子曰, 後生可畏, 焉知來者之不如今? 四十,五十而無聞焉, 斯亦不足畏也已)”(「자한」)

“여성과 어린이는 대하기 어렵다. 잘해주면 기어오르고 못해주면 원망하니까.”
(子曰, 唯女子與小人爲難養也, 近之則不孫, 遠之則怨.)(「양화」)

통치의 방법

“당신이 탐욕스럽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도둑질을 하라고 시켜도 하지 않을 것이오.(子曰, 苟子之不欲, 雖賞之不竊).”(「안연」)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말을 잘 들을까요? 한 수 가르쳐주시지요.”-“정직한 관리를 뽑아서 사악한 자들을 처벌하게 하면 백성들이 말을 잘 듣지만, 사악한 자를 뽑아 정직한 사람들을 누르려 한다면 백성들이 말을 듣겠습니까?”

“법률과 형벌로써 백성을 다스리면, 국민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법망을 피해가며 나쁜 짓을 저지르게 되고 이렇게 되면 국민들은 나쁜 짓을 하면서도 점점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다. 하지만 도덕으로 인도하고 예의로써 통제하면 국민들은 양심을 되찾아 스스로 바르게 된다.”
(道之以政, 齊之以刑, 民免而無恥; 道之以德, 齊之以禮, 有恥且格)(「위정」)

“정치를 할 때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경제와 국방, 국민의 신뢰감 중에서 부득이 하나를 희생해야 한다면 무엇을 먼저 버려야 합니까?” 공자가 먼저 국방을 버리라고 함. 나머지 둘 중에 하나를 더 버린다면 무엇을 버려야 하느냐는 자공의 물음에 공자는 명쾌하게 대답함. “경제를 희생해야지.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죽는 것이다. 국방이든 경제든 사람들이 서로 마음을 합하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안연」)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신뢰. ‘백성이 믿음을 잃으면 나라가 바로 서지 못한다[民無信而不立]’

2. 공자, 다시 살아나다

1) ‘공자학원’- 공자의 화려한 부활

문화혁명 기간에 부관참시 상태에 이르렀던 공자, 이미 중국에서 눈부시게 부활한 상태.

2004년, 세계 최초의 ‘공자학원(孔子學院)’이 우리나라의 서울에 세워짐.
공자학원은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 중국어와 중국 문화를 전파하는 첨병 노릇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만 이미 13개의 공자학원이 설립되었고, 2009년 4월에는 중국의 당 권력 서열 5위인 리창춘[李長春]이 제주도 한라대학의 공자학원 개원식에 참가한 바 있음. 공자의 이름으로 중국어

의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음.
2006년에는 <백가강단(百家講壇)>에서의 강연 내용을 담은 위단[于丹]의 『논어심득(論語心得)』이 중국을 휩쓸었고, 2009년 청명절에는 조상을 찾아 제사를 지내느라 이동한 사람들이 4억 명에 이른다는 보도가 나왔으며 조상 숭배의 습속이 되살아나면서 호화분묘에 대한 문제가 생겨나고 있다는 기사도 보임.
마르크스주의가 더 이상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이념이 될 수 없는 시대, 중국 정부는 새로운 이념의 구심점으로 공자를 발견해냈음. 2009년 청명절에는 공자의 고향인 산둥성 취푸[曲阜] 니산(尼山)에서 정식으로 공자에 대한 제례가 행해졌고, 런민[人民]대학에서는 3년 전부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논어』 암송대회를 개최. 후진타오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조화로운 사회[和諧社會]'라는 구호 역시 공자의 '화(和)'에서 왔음.

또한 사회주의 50년을 거치면서 메말라버린 사람들의 심성을 공자가 제시했던 전통적 이념들이 채워주고 있는 것. 지금 중국 사람들이 다시 공자에 열광하고 『논어』의 구절을 암송하며 조상들의 무덤을 찾아가는 것은 자신의 뿌리, 자신이 연결되어 있는 전통의 끈을 찾고자 하는 심층심리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닐까.

2) 영화 <공자>를 말하다- '저우룬파[周潤發]'가 공자라고?

2009년 3월, 전 세계 중국인들은 저우룬파가 영화 <공자(孔子)>의 주인공을 맡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저우룬파가 과연 성인 공자의 역할을 맡기에 적당한가'라는 논쟁이 시작됨.
왜 하필 저우룬파인가? 공자가 갖고 있는 다양한 이미지들 중에서 왜 감독은 하필 강호의 영웅 이미지를 강렬하게 갖고 있는 배우 저우룬파를 택한 것일까? 그 선택의 배경은?
<공자>의 감독은 드라마 <옹정왕조(雍正王朝)>(1997)와 <한무대제(漢武大帝)>(2003), <교가대원(喬家大院)>(2005) 등을 만들었던 후메이[胡玫].
"창작에 있어서 내가 남편에게 받은 영향은 매우 크다"
"일본이나 한국에서 공자를 만들 수 있다. 한국에서는 공자가 자신들의 조상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그들이 만들기 전에 먼저 만들어야 한다. 공자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중국인 뿐이다."

허신(何新)은 누구인가?(-> 『만들어진 민족주의 황제신화』(김선자, 책세상) 참조)
『정치국가주의를 논함[論政治國家主義]』 등의 저서를 통해 마키아벨리적 이념을 내세우는 극단적 국가주의자의 면모를 보여 왔음. '조화로운 사회', '대국굴기' 등 후진타오 정부가 들어선 이후의 구호들이 허신이 평소에 주장했던 것과 매우 근접해 있음.
'역사는 이데올로기'라고 주장. 그에게 있어서 역사는 강한 중국을 만드는 도구.

허신의 새로운 전략- 영상 매체

2002, 『공자약전(孔子略傳)』- 허신은 공자 정치 이상의 핵심인 '존왕양이(尊王攘夷)'에서 '존왕'은 국가주의를, '양이'는 민족주의를 의미한다고 해석함. 지식 엘리트들의 중국에서의 영향력을 생각해볼 때 '인(仁)'을 '사람을 사랑하는 것[愛人]'으로 해석했던 공자의 가르침이 심각하게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